

남지 일대의 포유류

이화진 · 성제원*
(제주대학교 · *야생동물연합)

요약

남지 일대에 대한 포유류조사는 2019 년 4~10 월에 실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17 종이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1 종(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은 2 종(삵, 담비) 이었다.

1. 서론

남지(도엽번호: 358102) 일대에 대한 기존의 포유류조사는 손·김(1998), 오·정(2008), 정·권(2015)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이 조사는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포유류의 현황 및 서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 조사지역 및 방법

조사는 남지(도엽번호: 358102)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그림 1), 자세한 조사일정은 표 1 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9 개의 격자로 나누어 7 개 격자에 대하여 1~3 회씩 실시하였다. (그림 1), 조사방법은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을 따랐다(국립생태원 2019).

표 1. 조사일정

격자 \ 조사	1 회 조사	2 회 조사	3 회 조사
E1	2019. 10. 21	—	—
E2	2019. 9. 11	2019. 10. 21	—
E4	2019. 5. 20	2019. 5. 22	2019. 10. 21
E5	2019. 4. 22	—	—
E7	2019. 5. 21	—	—
E8	2019. 5. 21	—	—
E9	2019. 9. 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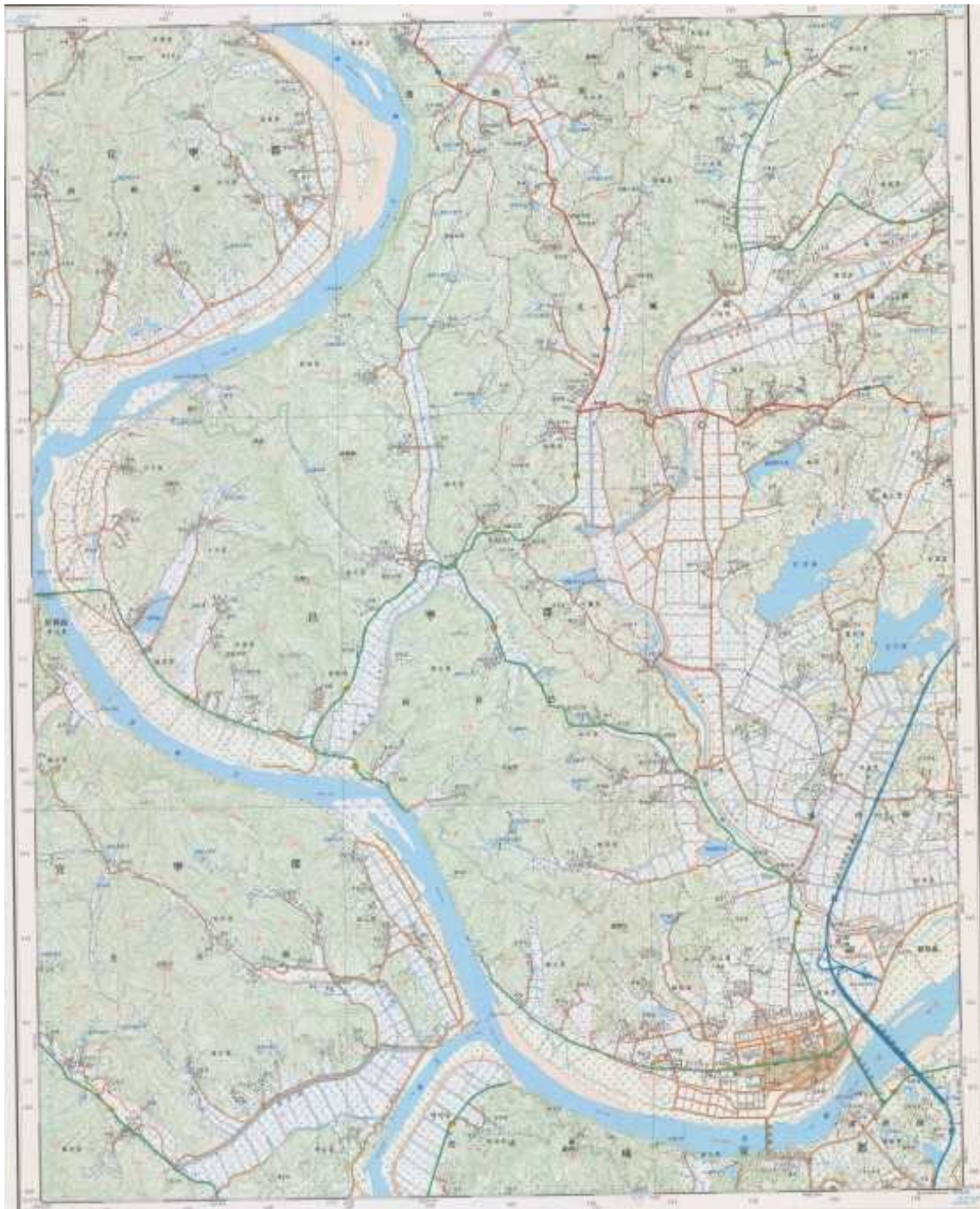


그림 1. 남지 일대의 도엽

3. 결 과

3-1. 전체 포유류 현황

남지 일대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아종을 구분하여 총 17 종이었다(표 2). 이를 격자별로 보면, E1 이 3 종, E2 가 5 종, E4 이 9 종, E5 가 5 종, E7 이 10 종, E8 이 3 종, E9 가 8 종이었다.

표 2. 남지 일대의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4	E5	E6	E7	E8	E9
두더지	○	-	-	○	-	-	○	-	○
샐	-	-	-	○	-	-	○	○	○
고양이	-	-	-	○	-	-	-	-	-
너구리	-	○	-	○	○	-	-	-	○
개	-	-	-	-	-	-	○	-	-
족제비	-	-	-	-	-	-	○	-	-
담비	-	-	-	-	-	-	○	-	-
오소리	○	-	-	-	-	-	○	-	-
수달	-	○	-	-	-	-	-	○	○
멧돼지	-	○	-	○	○	-	○	-	-
노루	-	○	-	○	-	-	○	-	-
고라니	○	○	-	○	○	-	○	○	○
염소	-	-	-	-	-	-	-	-	○
멧토끼	-	-	-	-	○	-	-	-	○
청설모	-	-	-	○	○	-	○	-	-
등줄쥐	-	-	-	○	-	-	-	-	-
뉴트리아	-	-	-	-	-	-	-	-	○
합계(총 17 종)	3 종	5 종	0 종	9 종	5 종	0 종	10 종	3 종	8 종

3-2.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남지 일대에서 확인된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는 산림에서 12 종, 수계에서 9 종, 경작지에서 2 종, 도로(임도 및 지방도, 국도)에서 3 종으로 확인되었다(표 3).

표 3. 남지 일대의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중명 서식지 유형	산림	경작지 (논, 밭, 과수원)	수계 (하천, 저수지)	도로(임도 및 지방도, 국도)
두더지	○	○	○	-
샐	○	○	-	○
고양이	-	○	-	-
너구리	○	○	-	-
개	-	○	-	-
족제비	○	-	-	-
담비	○	-	-	-
오소리	○	-	-	-
수달	-	○	-	-
멧돼지	○	-	-	-
노루	○	-	-	-
고라니	○	○	○	○
염소	-	○	-	-
멧토끼	○	-	-	-
청설모	○	-	-	○
등줄쥐	○	-	-	-
뉴트리아	-	○	-	-
합계(총 17 종)	12 종	9 종	2 종	3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1 종(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은 2 종(샐, 담비)이었다(표 3).

표 4. 남지 일대 서식지 유형별에 따른 출현종 서식 흔적수 현황

구분 유형	종명	계 (흔적)	배설물	족적	털	굴	휴식처 (보금자리)	직접 관찰	포획	기타
산림	두더지	5				5				
	샐	6	6							
	너구리	3	3							
	족제비	1	1							
	담비	1	1							
	오소리	2	1			1				
	멧돼지	15		1				7		7
	노루	3	2							1
	고라니	20	19							1
	멧토끼	2	2							
	청설모	3								3
	등줄쥐	2							2	
수계(하천, 저수지)	두더지	1				1				
	샐	5	3	1						1
	고양이	1	1							
	너구리	3	1	2						
	개	1	1							
	수달	5	4	1						
	고라니	10	5	5						
	염소	1	1							
	뉴트리아	2	2							
경작지(논, 밭, 과수원)	두더지	1				1				
	고라니	1		1						
도로(임도, 지방도 등)	샐	1	1							
	고라니	2	1	1						
	청설모	1								1

3-3.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남지 도엽에서 조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은 1 종(종명: 수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은 2 종(종명: 삵, 담비)이었다(표 5).

표 5. 남지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격자	수달 1		수달 2		수달 3		수달 4		수달 5		삵 1		삵 2		삵 3		삵 4		삵 5	
E2	-	-	-	-	-	-	-	-	○	-	-	-	-	-	-	-	-	-	-	-
E4	-	-	-	-	-	-	-	-	-	-	○	-	○	-	○	B	○	B	○	-
E7	-	-	-	-	-	-	-	-	-	-	-	-	-	-	-	-	-	-	-	-
E8	○	B	○	B	-	-	-	-	-	-	-	-	-	-	-	-	-	-	-	-
E9	-	-	-	-	○	-	○	-	-	-	-	-	-	-	-	-	-	-	-	-

종명 격자	삵 6		삵 7		삵 8		삵 9		삵 10		삵 11		삵 12		담비	
E2	-	-	-	-	-	-	-	-	-	-	-	-	-	-	-	-
E4	-	-	-	-	-	-	-	-	-	-	-	-	-	-	-	-
E7	-	-	○	-	○	-	○	-	-	-	-	-	-	C	-	-
E8	○	-	-	-	-	-	-	-	-	-	-	-	-	-	-	-
E9	-	-	-	-	-	-	-	-	○	B	○	B	○	-	-	-

4. 고 찰

남지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는 총 17 종이었다. 조사기간 중 생포트랩(sherman trap) 설치하는 무인센서카메라 설치지역인 E4 에 설치하였으며, 등줄쥐 1 종이 포획되었다. 산림 내 무인센서카메라 조사에서는 3 종(고라니, 멧돼지, 노루)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본 조사지점에 설치한 무인센서카메라는 색번짐으로 인해 사진판별에 동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금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서식이 확인된 종은 고라니로 총 33 회의 흔적이 관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멧돼지 15 회, 삥 12 회, 두더지 7 회, 너구리 6 회, 수달 5 회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지역은 낙동강 수계와 남강 수계가 합류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계 전 구간과 지류 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수달의 흔적인 확인되었다. 또한 낙동강 수계 지류인 계성천에서 외래종인 뉴트리아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외래종인 뉴트리아는 낙동강 수계와 남강 수계에 확산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창녕군의 우포늪과 그 일대의 다른 습지(늪)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환경부, 국립생태원, 2017). 따라서 남지 도엽에서는 낙동강 수계와 그 지류인 계성천, 남강과 합류되는 합수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외래종의 확산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지도엽은 낙동강 수계 주변에 농경지와 인근 산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요산으로 창녕군의 구진산과 의령군의 갯등산이 분포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주요산의 분포지역인 E4 와 E7 에서 9 종과 10 종의 포유류가 확인되었으며, 도엽내에서 가장 높은 종수를 보였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삥은 주요산의 능선과 임도, 하천변에서 서식흔적을 확인하였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담비는 갯등산(E7) 능선부에서 배설물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산림생태계가 이 지역을 생태계로 이용하고 있는 포유류들에게 안정적인 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종합 및 제언

남지 도엽은 낙동강 본류가 흐르는 도엽으로 남강과 만나는 합수지점, 지방하천인 계성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다. 낙동강 본류와 남강이 만나는 합수지점은 수량과 먹이량이 풍부하고 주변으로 초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수달과 야생동물에게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외래종인 뉴트리아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어(환경부, 국립생태원, 2017)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남지도엽의 주요산인 구진산 일대는 북쪽으로 창녕군 창녕읍, 서쪽으로 함안군 낙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동강과 인접한 낮은 산지로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써 중요한 산림패치로 작용할 것이며, 이 산림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도에 대한 로드킬에 대한 감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손성원, 김진용. 1998. 제 2 차 전국자연환경조사(밀양, 창녕일대의 포유류). 환경부
오기철, 정동호. 2008. 제 3 차 전국자연환경조사(남지일대의 포유류). 환경부
정상용, 권세연. 2015. 제 4 차 전국자연환경조사(남지일대의 포유류). 환경부
환경부, 국립생태원. 2017. 2017 년 전국 뉴트리아 서식실태 조사. 환경부,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2019.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 국립생태원

[부록 1] 사진대지

	
사진 1. 조사지 전경(낙동강)	사진 2. 조사지 전경
	
사진 3. 조사지 전경	사진 4. 조사지 전경
	
사진 5. 담비 (E7)	사진 6. 삥 (E4)

